

늘어나는 노인학대...광주시 사전예방 총력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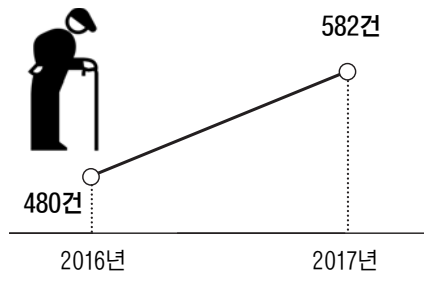
온라인·방문상담 운영

상담·의료 서비스 제공

광주시가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상담 및 예방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친족의 신체적·정신적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남구 사동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받고, 사안에 따라 개입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

■ 광주 노인학대 사례



대 사례는 2016년 480건에서 2017년 5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행위자 244명 가운데 아들 28.7%(70명), 배우자 28.3%(69명) 등 친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대 유형은 582건 중 정서적 학대

가 46.9%(273건)을 차지했으며, 신체적 학대도 34.9%(203건)나 됐다. 의처증(의부증) 등 부부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0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시키는 등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학대피해 노인을 일시보호하는 한편 심리상담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심신을 치유하고, 학대상황이 개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대예방 방지를 위한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노인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대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은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면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다. 직접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명이 보장되는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 모두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면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 통해 본 지난 20년간 광주·전남에 따르면 2016년 말 광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만4516명으로 지난 1995년과 비교해 200.2% 증가했다. 또 2014년의 기대수명은 광주 81.4세로 2005년과 비교해 3.1세 늘어났다.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다. 직접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명이 보장되는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 모두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면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 통해 본 지난 20년간 광주·전남에 따르면 2016년 말 광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만4516명으로 지난 1995년과 비교해 200.2% 증가했다. 또 2014년의 기대수명은 광주 81.4세로 2005년과 비교해 3.1세 늘어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세계청년축제 총감독 공모

광주시, 8일~15일 접수

광주시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제4회 세계청년축제' 청년총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총감독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문화행사로 시작돼 광주를 대표하는 청년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세계청년축제'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축제 전반에 관한 연출을 맡는다.

응모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축제·공연 기획운영 경험이 있으면서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이전에 3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응모자의 유사 경험실적, 기획력 및 실현 가능성, 개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감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세계청년축제는 7월 27일부터 3일간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하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광주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전동차 정비현장 점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해빙기 등 계절적 특성으로 봄철에 화재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5월까지 3개월간 봄철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는 봄철에 857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 화재의 29.7%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18명의 인명피해와 36억54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

광주 화재 3건 중 1건 봄철 발생

소방본부, 시설 점검·안전교육

인별로는 부주의가 582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전기 137건(11.7%), 기계 43건(6.05%) 순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119가동단속

반 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자유학기제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학원 등 방과 후 이용시설과 봄철 여행주간 숙박·체험시설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

설 점검·전원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관계자 자체 점검과 화재발생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신축 및 건축물 준공 후 내부 공사장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지도, 화재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관계자 교육, 용접부주의·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 등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전세임대 80호 지원

21일~30일 주민센터서 신청

광주도시공사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80호에 대해 입주 지원대상자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 신청자는 기존주택 전세·전남에 따르면 2016년 말 광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만4516명으로 지난 1995년과 비교해 200.2% 증가했다. 또 2014년의 기대수명은 광주 81.4세로 2005년과 비교해 3.1세 늘어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5%와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호당 지원한도액 250% 이내 주택까지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은 차기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공고일인 7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시공사 맞춤형주택팀 (600-6724~6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속가능발전 '시민씨앗사업' 공모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오는 14일까지 '2018 지속가능발전 시민씨앗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의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물순환 도시 등 광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5차 의제(2017~2021) 17개 분야에 대해 15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총액 1500만원으로, 각 사업별로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5차 의제는 환경, 경제, 사회,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등 5개로, 17개 분야는 홈페이지(www.greengj21.or.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광주시 관내에 소재한 3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주민조직,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며, 학생 동아리의 경우 지도교수 혹은 지도교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추진 결과 공유 및 평가를 위한 보고회는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문의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613-4173)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greengj21.or.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광주시 관내에 소재한 3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아리, 주민조직,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며, 학생 동아리의 경우 지도교수 혹은 지도교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추진 결과 공유 및 평가를 위한 보고회는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문의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613-4173)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장례식장 5곳 민관 합동점검

광주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 6일부터 8일까지 관내 장례식장 40곳 중 5곳을 선정해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반에는 안전관리 자문단이 참여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상태를 점검한다.

장례식장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균열 등 손상 위험 여부를 살피고, 안전 관련 인력 확보 여부와 안전매뉴얼 운영 여부, 위급 시 소방시설 작동 여부,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 적정 여부, 가스누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35곳에 대해서는 자치구 임의하에 장례식장 소

유자 또는 관리자가 실명으로 세부 점검 표에 따라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등을 자율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윤구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어느 시설보다 면밀한 진단과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례식장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장기투자 가치 좋습니다, 회사 사정상 매매함, 010-3605-5000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사불대폭 조정가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무인도)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있음
- 교환가능(현금3억+기타부동산)
- 매매 - 14억 (대출3억포함)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전망 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 좋음
- 매매 - 11억 (조정가)